

##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Queens of Silla and the theory for a woman to achieve the buddhahood()

---

저자 (Authors)	조경철 Jo Gyung-cheoul
출처 (Source)	<a href="#">역사와현실</a> ,(71), 2009.3, 127-152(26 pages) <a href="#">YKSA WA HYNsil :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a> ,(71), 2009.3, 127-152(2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역사연구회</a> The Organization Of Korean Historian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57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5745</a>
APA Style	조경철 (2009).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a href="#">역사와현실</a> (71), 127-15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0 16:3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의 여왕과 여성성불론

조 경 철\*

머리말

1. 선덕여왕의 변성성불
  2. 진덕여왕의 즉신성불
  3. 해공왕의 변성성불과 신라의 위기
  4. 진성여왕과 신라 여성성불의 종언
- 맺음말

## 머리말

한국사에서 여성이 최고통치 권력을 행사한 시대는 고대다. 고대에만 최고 통치자인 여왕이 있었다. 고대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지만 유독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다. 신라의 여왕은 선덕·진덕·진성여왕의 3명이 있었고, 선덕과 진덕은 통일신라 이전의 여왕이고 진성은 통일신라의 여왕이다. 해공왕은 여왕이 아니었지만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여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왕이라 본 글에서 다루어 보았다.

보통 선덕이 여성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골품제

\* 연세대 사학과 강사

대표논저 : 2008, 「백제 칠지도의 상징과 명첩」 『한국사상사학』 31 ; 2008, 「광개토왕대 영락 연호와 불교」 『동북아역사논총』 20 ; 2007 「백제 웅진외의 대통사와 대통신앙」 『백제문화』 36.

를 든다. 성골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 하대의 진성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진골 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여성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골품제라는 신분제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상이 불교다. 불교에서는 유교와 달리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출세간의 최고의 경지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명제는 여성도 세간의 최고 통치자인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여왕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보게 했다.

그런데 한화정책을 추진한 경덕왕은 아들을 얻지 못하자 혜공왕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게 하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는 현세의 왕은 남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신라의 마지막 여왕은 진성여왕이다.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선덕과 진덕의 선례가 크게 작용했다. 이때는 진골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골품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그런데 진성이 왕위에서 물러난 것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의 형식을 취하였다. 즉 진성은 본인이 덕이 부족하다고 하여 효공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진성이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랐지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여성이 최고통치자인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진성을 끝으로 한국사에서 여성이 왕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 글은 기존의 여왕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어왔던 점에서 나아가 선덕·진덕·진성이 여왕에 오르고, 혜공왕이 남자로 몸을 바꾸게 된 배경을 불교의 여성성불론<sup>1)</sup>이란 사상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1) 여성성불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전해주, 1986 「변성성불론의 비판적 검토」 『불교사상』 27 ; 전해주 편, 1987 『여성불교학자료집』, 민족사 ; 히라가와 아키라 지음, 심법제 옮김, 1988 『초기대승불교의 종교생활』, 민족사 ; 이창숙, 1993

## 1. 선덕여왕의 변성성불

불교에서는 유교와 달리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성의 몸을 바꾸어 남성의 몸을 얻는다는 ‘변성성불’이란 전제가 따라 붙지만 여성의 성불을 언급한 것은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불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깨달을 수 있다 한다. 물론 일천제(一闡提)는 깨달을 수 없다는 일부의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때의 사상에 불과하였다. 여성성불론의 역사적 전개상황에 대해서는 원시불교 단계에서는 여성성불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부파불교 단계에서는 부정적이었고 이후 대승불교 단계에서 다시 여성성불론이 대두한 것으로 파악된다.<sup>2)</sup>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가 많아 직접적인 여인의 성불을 어렵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깨달음의 길이 닫혀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여성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세간의 최고지위인 왕위에도 오르거나 통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사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A-1. 이름은 덕만이요 진평왕의 맏딸이며 어머니는 김씨 마야부인이다. 덕만은

---

「인도불교의 여성성불사상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미, 1995 「신라불교사에 나타난 여성의 신앙생활과 승려들의 여성관 『여성신학논집』 1; 안옥선, 1998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여성 성불 불가설의 반불교성 고찰」 『철학연구』 68; 勝浦令子, 2003 『古代・中世の女性と佛敎』, 山川出版社, 東京; 김영미, 2003 「고려 진각국사 혜심의 여성성불론」 『이화사학연구』 30; 조승미, 2004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불교수행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조승미, 2004, 앞의 논문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고 명민하였다. 진평왕이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위에 올려 세우고 칭호를 올려 성조황고(聖祖皇姑)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sup>3)</sup>

A-2. 이름은 덕만이다. 아버지는 진평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 김씨다. 성골(聖骨)의 남자가 없으므로 여왕이 왕위에 올랐다.(『삼국유사』 권1 왕력 선덕여왕)<sup>4)</sup>

선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라의 전통적인 여성관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와 더불어 이성(二聖)이라 불리며 나라를 다스린 알영의 경우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탄생에 대한 신화를 가질 정도로 신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덕만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조황고(聖祖皇姑)란 칭호를 받았는데 성조황고는 ‘성스러운 혈통을 가진 여성 황제’란 의미로 여성에 대한 극존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신라사회의 독특한 신분제인 골품제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평왕의 아들이 없어 덕만을 왕위에 올려 세웠다고 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골의 남자가 없어서 선덕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성골의 시작을 『삼국유사』처럼 중고기의 시작인 법흥왕으로 보기도 하지만,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의 가계로 좁혀보기도 한다. 그러한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덕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불교의 영향이다. 덕만의 어머니는 마야(摩耶)부인인데, 마야는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이다. 덕만의 아버지인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白淨)으로 또한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이다. 만약 덕만의 아버지-어머니에게

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諱德曼 眞平王長女也 母金氏摩耶夫人 德曼性寬 仁明敏 王薨 無子 國人立德曼 上號聖祖皇姑”

4) 『삼국유사』 권1 왕력 선덕여왕. “名德曼 父眞平王 母摩耶夫人金氏 聖骨男盡 故女王立”

서 아들이 태어났다면 실달다(悉達多)라는 이름을 지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으므로 딸인 덕만이 왕위에 올랐다. 덕만은 부모가 석가모니의 부모라는 후광에다 자신이 여자였지만 석가모니에 비견되는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덧붙여 신라의 전통적인 여성관, 성골로 대표되는 골품제, 불교의 후광은 여성이 왕이 되는 각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조황고란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준호로 볼 수 있다.<sup>5)</sup>

그런데 덕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인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sup>6)</sup> 선덕(善德)이란 왕명도 선덕바라문(善德婆羅門)에서 취했으며, 그는 석가모니로부터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한다.<sup>7)</sup> 또한 선덕의 이름인 덕만은 『열반경』의 덕만 우바이와 연관을 맺기도 한다. 덕만 우바이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일부러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sup>8)</sup>

덕만의 부모의 이름은 석가의 부모의 이름인 백정과 마야였지만 그들의 후손인 덕만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므로 진평왕 부부나 덕만은 덕만이 남재[석가]라는 장치가 필요했다. 곧 여성인 자신이 남성과 다름없다는 연

5) 물론 선덕과 진덕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진골 귀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선덕과 관련해서는 선덕이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인 진평왕 53년(631)에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의 반란이 있었고, 진덕과 관련해서는 선덕여왕 말년 비담과 염종의 반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주보돈, 1997 「비담의 난과 선덕왕대 정치운영」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정용숙, 1997 「신라 선덕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상]』

6) 남동신, 1995 「원효의 대중교회와 사상체계」 서울대학교사학박사논문, 24~25쪽

7) 『대방등무상경』 한글대장경(이하 한글장으로 약함) 256권, 161쪽.

8) 그러므로 중교왕실로서는 여왕 즉위를 정당화시켜줄 명분이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열반경』에서 찾은 것은 아닐까 한다. 경에는 중생을 교화하고자 일부러 여인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경우를 들고 그 경우 여인일지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여인성불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남동신, 1996, 앞의 논문, 25쪽).

결고리가 필요했다. 사실 여성인 선덕여왕이 남성으로 태어나길 바랬다는 점은 다음 기록에 나타나 있다.

B. 왕이 아무런 병도 앓지 않을 때에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 죽을 것이니 도리천(勿利天) 가운데 장사하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어디냐고 물어 아팠더니 왕이 말하길, “낭산 남쪽이니라”하였다. 왕이 말했던 그 달 그 날이 되자 과연 왕이 죽으매 여러 신하들이 낭산 남쪽에 장사하였다. 그 후 10여년 만에 문무대왕이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왕의 무덤 밑에 지었다. 불경에 일렀으되 “사천왕천(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하였으니 이로써 대왕의 신령스럽고 가름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 선덕왕지기삼사)

위 이야기는 선덕여왕의 총명을 말해주는 모란꽃 이야기, 여근곡 이야기, 도리천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도리천 이야기는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선덕여왕이 여성으로서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위 도리천 이야기에서 선덕은 자신을 도리천에 묻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숨은 속뜻은 자신은 죽어서 도리천의 제왕인 제석(帝釋)이 될 현세의 제왕임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제석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세상을 포함하여 사천왕천, 도리천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배자이다. 따라서 제석은 고대와 중세에 왕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신앙대상 이었다.<sup>9)</sup> 그런데 선덕여왕의 경우 여성인 자신이 꼭 제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C. 그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오래지 않아 위없는 높은 도를 얻

9) 단군신화에서 환인을 제석이라 했고, 대표적인 사찰로 백제의 제석사, 고려의 외제 석사를 들 수 있다(조경철, 2005 「단군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기이편의 연구』, 경인문화사).

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 묻고 깨끗하지 못하므로 법의 그릇[法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없는 도를 능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의 도는 멀기 때문에 한량없는 겁 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범도를 닦아 갖춘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여자의 몸은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으니, 그 첫째는 범천왕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둘째는 제석(帝釋)이며, 셋째는 마왕이요, 넷째는 전륜성왕이요, 다섯째는 불신(佛身)이니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중략) 그때 모인 대중이 모두 용녀를 보니, 홀연시간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남방의 청정한 세계에 가서 보배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다. 그러자 32상과 80종호를 갖추어 시방의 온갖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널리 연설하고 있었다.(『법화경』 권4 제바달다품)<sup>10)</sup>

위 『법화경』의 글은 사리불이 용녀에게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점을 다섯 가지의 장애를 들어 언급하자,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내용이다.<sup>11)</sup> 불교의 변성성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녀설화이다. 위 글에서 여성이 될 수 없는 5가지로 범천왕·제석·

10) 『법화경』 대정신수대장경 9권, 35-c ; 한글장 41권, 156-157쪽. 이하 대정신수대장경은 대정장으로 약함. “時舍利佛於龍女言 汝謂不求得無上道 是事難信 所以者何 女身垢穢非是法器 云何能得無上菩提 佛道懸曠經無量劫 勤苦積行具修諸度 然後乃成 又女人身猶有五障 一者不得作梵天王 二者帝釋 三者魔王 四者轉輪聖王 五者佛身 云何女身速得成佛(中略) 當時衆會皆見龍女 忽然之間 變性男子 具菩薩行 卽往南方無垢世界 坐寶蓮華成正覺 三十二相八十種好 普爲十方一切衆生演說妙法”

11) 그런데 한글장 41권, 156쪽에 보면 지적보살이 ‘이제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나이다(不信此女於須臾頃便成正覺, 대정장 9권, 35-b)’ 라고 말하고 있다. 용녀는 보리를 이루는 일은 부처님만 안다고 게송을 읊으면서 자신은 이미 깨달았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보이기 위해 남자의 몸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용녀는 이미 깨달았지만 자신이 깨달았음을 중생에게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성성불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남자로 변해 깨달았음을 증명했으므로 본 절의 小題를 ‘남자로 변해 깨달아’로 하였다.

마왕·전륜성왕·불신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제석은 도리천의 천신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여왕 선덕은, 여성이기 때문에 될 수 없던 제석이지만, 자신이 죽어 도리천에 문힘으로서 제석이 되고자 하였다. 선덕은 사람들에게 지금 여성이지만 장차 남성으로 변해 제석이 될 여왕임을 주시시키고자 하였다.<sup>12)</sup>

선덕이 죽어서 도리천에 물어달라고 하여 내세에 제석이 되겠다는 원을 세웠지만 살아있을 때도 제석이 되고자 한 원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에 의하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하였다.<sup>13)</sup> 그리고 선덕의 사촌인 승만의 이름이 『승만경』에서 유래했으므로 선덕도 『승만경』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승만경』 승만장에 의하면 제석은 꼭 『승만경』을 수지 독송하라는 부처의 다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sup>14)</sup> 선덕도 『승만경』을 수지 독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선덕은 여러 경전에 나오는 제석에 관심이 많았겠지만 용녀의 성불을 말하고 있는 『법화경』과 선덕의 뒤를 이은 승만이 즐겨 독송했을 『승만경』에 나오는 제석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5)</sup>

12) 『대방등무상경』에 여자씨만큼이나 되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공양함으로써 도리천 주가 되고 싶다는 선덕바라문의 소원을 싣고 있는데(한글장 256권, 156쪽), 선덕이란 왕호도 이 선덕바라문과 연결된다고 한다.(남동신, 1995, 앞의 논문, 26쪽)

13)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 한글장 41권, 258쪽. “다만 이 경전을 옮겨 쓰기만 하여도 그 사람은 죽어서 忉利天에 태어나게 되고, 그 곳에 태어날 때는 6만 4천 천사들이 못 기악을 연주하며 영접하고 (하락)”

14) 한글장 149권 578쪽; 대장장 12권, 223-a “이때 세존께서는 天帝釋과 장로 아난에게 이 경을 널리 설하였다. 그리고 제석에게 말하였다. ‘너는 마땅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라’”(爾時世尊向天帝釋及長老阿難 廣說此經 說已告帝釋言 汝當受持讀誦此經)

15) 『승만경』은 기원전 3-4세기에 편찬된 경전으로 중국을 거쳐 신라에 576년(진흥왕 37)에 전해졌다. 원광이 중국 유학시절 『승만경』을 강론했던 승민의 제자에게 이 경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고, 전하진 않지만 원효와 도륜의 『승만경소』가 있다.(이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세운 사찰로 신라에서는 여왕이 발원하여 세운 최초의 사찰로 볼 수 있다.<sup>16)</sup> 여성으로 처음 왕위에 오른 선덕이 세운 분황사는 여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황사라는 절 이름 자체가 향기나는 절이란 뜻으로 여왕이 세운 절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거나<sup>17)</sup> 분황사를 분타리(芬陀利)[연꽃]와 각황(覺皇)[부처]의 절이란 뜻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sup>18)</sup>

선덕여왕은 분황사를 창건한 후 자주 이절에 나아가 자주 불교 법회를 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 법회 때 강설한 경전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용녀설화를 신고 있고, 법화신앙의 소의경전인 『법화경』도 그 중에 한 경전이었을 것이다.<sup>19)</sup> 선덕은 또한 사촌누이인 승만(진덕여왕)과도 같이 분황사에 들렀으며, 특히 자신의 왕위를 승만에게 물려줄 것이 확실한 집권기 후반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승만부인이 주인공인 『승만경』도 자주 강설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선덕이 최초로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골품제를 들고 있다. 성골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골 여자가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골의 성립에 불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기 이었기 때문에 골품제의 성골은 불교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덕의 부

만, 2006 「신라 원효의 승만경소에 관한 연구 - 일승장 제5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44, 48쪽)

16)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특히 비늘 등 여성 관련 공양품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선 주경미, 2007 「분황사 석탑 출토 불사리장엄구의 재검토」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靜齊 金理那 教授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참조.

17) 남동신, 1999 「원효와 분황사 관계의 사적추이」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0, 79쪽

18) 김영태, 1996 「분황사와 원효의 관계사적 고찰」 『원효학연구』 1, 원효학연구원, 22쪽

19) 신라 중고기 법화신앙에 대해선, 박광연, 2008 「신라 중고기의 법화신앙」 『한국사상사학』 31 참조.

모님이 석가의 부모님인 백정과 마야부인의 이름을 취했다는 데서 왕실을 석가족에 대비시키려고 하는 석가족 의식이 극성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불교적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여성성불론이 선덕이 여왕에 오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문제이다.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는 여성성불론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선덕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선덕이 여왕이 되기 전 ‘여성이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변성성불의 용녀설화나 『승만경』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의 논의는 진평왕이나 선덕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교설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덕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은 본래 남성의 몸이었으나 중생 제도를 위하여 잠시 여인의 몸을 가졌다거나, 변성성불 혹은 즉신성불에 의해 전륜성왕이나 제석이 될 수 있다는 교설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덕은 현세의 여성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자체는 극복할 수 없었다. 선덕은 최초의 여왕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변성성불’에 의하여 여인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생각된다.<sup>21)</sup>

앞서 선덕이란 왕명은 『대방등무상경』의 전륜성왕이 될 수기를 받은 선덕바리문에서 가져왔으며, 선덕의 이름인 덕만은 『열반경』의 중생을 제도하고 일부러 여성의 몸으로 나뉜 덕만 우바이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 여왕과 관련하여 『대방등무상경』의 다음 구절도 주목된다.

20) 김두진, 1988 「신라 진평왕대의 석가불신앙」 『한국학논총』 10

21) 선덕은 아버지 진평왕(정반)과 어머니 마야부인이 석가의 아버지인 정반과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이름을 취했으므로 선덕은 원래 남자인 석가로 태어날 운명이었다. 그런데 선덕은 여자로 태어났다. 따라서 선덕은 원래 남자인 석가의 몸이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여자로 태어났다고 선전됐을 법하다. 결국 선덕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원래 남자의 몸이었으므로 남자로 변한다는 생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과 맞물려 신라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다.

D. 선남자여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나는 설명하리라. 방편으로서 내가 열반한 지 칠백년 후에 이 남천축에는 무명(無明)이라는 하나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흑암(黑闇)이라는 강이 있으며, 그 강 남쪽 언덕에 숙곡(熟穀)이라는 성이 있고, 그 성에 등승(等乘)이라는 왕이 있느니라. 그 왕의 부인이 증장(增長)이라는 딸을 낳으리라. 그녀는 형상이 단정하고 엄숙하며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며, 금계(禁戒)를 지키고 정진하며 게으르지 않으리라. 그 왕의 국토에서는 이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곡식이 풍요하게 잘 익고 쾌락이 끊이 없으며, 백성들이 많고 쇠모(衰耗)·병고·우뇌(憂惱)·공포·화난(禍難)이 없으며, 온갖 길한 일들을 두루 갖추며, 이웃의 모든 나라도 모두 와서 귀속할 것이니라.

유위(有爲)의 법은 덧없이 변천하므로 그 왕도 면하지 못하여 홀연히 죽을 것이니라. 그 때 여러 신하는 곧 이 딸을 받들어 왕의 후사를 이어받게 하리라. 여인은 바르게 이어받아 찬하를 위엄으로 다스려서 염부제 안의 모든 국토에서 모두 와서 받들어 거역하는 이가 없을 것이니라. 여왕(女王)은 자재하고 사건을 꺾어 조복시키고,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기 위하여 두루 염부제에 칠보탑을 일으켜 여러 가지 비단과 으뜸기는 번개와 전단의 미묘한 향을 가져다 두루 공양할 것이니라. 법을 보호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닌 이를 보면 공양하고 공경하지만 계율을 깨뜨리고 바른 법을 헐어뜨리는 이를 보면 꾸짖고 육보여 남음이 없게 없앨 것이리라. (중략) 이때 비로소 여인의 몸을 바꿀 것이요[전차여신(轉此女身)], 중생을 위하여 큰 신통을 보일 것이며, 무량수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짐짓 그 세계에 날것이니라. (중략) 선남자여 이 여왕은 미래 세상에 한량 없는 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되실 것이니, 명호는 정실증장(淨實增長)여래·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어장부·천인사·불세존이시라.(『대방등무상경』)<sup>22)</sup>

22) 『대방등무상경』 한글장 256권, 196~197쪽 ; 『대방등무상경』 대장장 12, 1107-a. “善男子 汝今諦聽 我當說之 以方便故我涅槃已 七百年後是南天竺 有一小國名曰無明 彼國有河名曰黑闇 南岸有城名曰熟穀 其城有王名曰等乘 其王夫人產育一女 名曰增長 其形端嚴人所愛敬 護持禁戒精進不倦 其王國土以生此女故 穀米豐饒快樂無極 人民熾盛 無有衰耗病苦憂惱恐怖禍難 成就具足一切吉事 隣比諸王咸來歸屬 有為之法無常遷代 其王未免忽然崩亡 爾時諸王即奉此女以繼王嗣 女既承正威伏天下 閻浮

남천축의 무명(無明)이란 나라의 등승(等乘)이란 왕에게 증장(增長)이란 딸이 태어나자 풍년이 들고 주위 나라가 귀속해 왔으며 나중에는 여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내용이다. 신하들은 증장을 받들어 왕위를 잇게 하였고 주위 나라들이 모두 받들어 거역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마치 선덕이 태어나고 왕위에 올랐을 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경에 그대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원문에 여왕(女王)이라 직접 언급되어서 더욱 선덕의 뜻에 맞았을 것이다.

주위의 여러 나라가 조복하고 부처님 사리를 받들었다는 증장의 이야기는 선덕이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하고 주변의 9개 나라가 조복하기를 바란 이야기와 흡사하다.<sup>23)</sup> 사리를 모시고 여러 향을 봉안한 사례는 분황사의 창건과 흡사하다. 특히 증장은 계율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선덕도 자장을 통해 계율을 강조하고 있다.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린 증장은 여인의 몸을 남자로 바꾸어 무량수불에게 공양하고 미래세에 정실 증장여래(淨實增長如來)가 된다고 하였다.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미래에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는 선덕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석이 된다는 이야기와도 흡사하다. 선덕이 분황사에 황룡사에 법회를 열었을 때 당연히 『대방등무상경』의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이다. 『대방등무상경』의 증장이란 여인이 여왕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도 변성성불의 한 가지로 볼 수

提中所有國土 悉來承奉無拒違者 女王自在摧伏邪見 為欲供養佛舍利故 遍闍浮提起七寶塔 齋持雜經上妙幡蓋栴檀妙香周遍供養 見有護法持淨戒者 供養恭敬 見有破戒毀正法者 呵責毀辱令滅無餘 具足修習十波羅蜜 受持五戒拯濟貧窮 教導無量一切眾生 說大雲經以調其心 若聞大乘方等經者 恭敬供養尊重讚嘆 滿二十年受持讀誦書寫解說是大雲經 然後壽盡 是時乃當轉此女身 為眾生故示大神通 為欲供養無量壽佛故 故生彼界 世尊 是女王者 未來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不耶 善男子 如是女王 未來之世過無量劫當得作佛 號淨實增長如來應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23) 『삼국유사』 권3 탑상 황룡사구층탑

있다.

## 2. 진덕여왕의 즉신성불<sup>24)</sup>

선덕의 뒤를 이어 여성인 진덕이 다시 여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덕이 여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전통적 여성관, 골품제도, 불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진덕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품성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E. 이름은 승만(勝曼)이요 진평왕의 동복 아우인 국반갈문왕의 딸이며 어머니는 박씨 천명부인이다. 승만은 외모가 부대하고 아름다우며 키가 7척이요 손을 늘이면 무릎을 넘겼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진덕왕)<sup>25)</sup>

성조황고라 했던 선덕과 달리 진덕은 자질풍려(姿質豐麗)로 여성미를 나타냈다. 골품과 관련해서 진덕은 진평왕의 동생인 국반갈문왕의 딸로 성골에 해당된다. 불교와 관련해서는 진덕의 큰아버지·큰어머니는 석가의 부모 이름을 가진 백정·마야로 진평왕과 그 부인이다. 그리고 진덕의 아버지는 국반으로, 국반은 석가의 작은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덕은 석가족의 일원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진덕의 손을 석가가 취하는 32상 80종호 가운데 하나인 ‘손을 늘이면 무릎을 넘긴다’라는 모습으로 설명하

24) 卽身成佛의 개념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變性하지 않고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할 경우 즉신성불로 보았다. 한편 조승미는 “대승경전에서 볼 수 있는, 이 교설[여성성불 불가설=필자 주]에 대한 입장은 수용에서부터 적극적인 비판과 여성 즉신성불설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조승미, 2004 앞의 글, 50쪽).

25)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진덕왕. “名勝曼 眞平王母弟國飯(一云國芬) 葛文王之女也 母朴氏月明夫人 勝曼姿質豐麗 長七尺 垂手過膝”

고 있다.

한편 진덕여왕은 남자 몸을 빌어 성불하고자 했던 선덕과 달리, 여성도 남성의 몸을 빌리지 않고 성불할 수 있다고 여겼을 법하다. 우리는 그 단서를 진덕여왕의 이름인 승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승만은 승만부인으로 『승만경』의 설주이다. 이 경에서 그녀는 일승과 여래장의 깊은 이치를 설하여 부처님으로부터 장래 부처가 될 수기를 받았다.

F.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서 승만부인에게 이렇게 수기하시었다. “네가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이 선근으로 한량없는 이승기겁 동안에 천상과 인간에서 자재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곳마다 나를 만나며 내 앞에서 찬탄하기를 지금과 같이 할 것이며 다시 한량없는 이승기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2만 이승기겁을 지나고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름을 보광여래응공정변지라 할 것이다.(『승만경』 여래진실의공덕장)<sup>26)</sup>

『승만경』에서는 변성성불 그 자체가 무시되고 있다. 즉 여성이 성불하기 위해 여인의 몸을 바꾸는 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sup>27)</sup> 진덕여왕 승만이 이루고자 했던 신라는 승만부인이 보광여래가 되어 다스릴 나라로 그 나라의 모습을 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G. 보광여래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늙고 병들고 쇠하고 시끄러운 일이나 맞지 않는 일이 없고, 나쁜 일이나 나쁜 갈래란 이름도 없다. 그 세계 중생들은 몸과 기운과 목숨과 5욕락이 구축하여 즐겁기가 타화자재천보다도 나을 것이며, 그 세계 중생들은 순일한 대승보살들이고 여러 가지 선근을 닦아 익힌 중생만이 모두 그곳에 날 것이다.(『승만경』 여래진실의공덕장)<sup>28)</sup>

26) 한글장 149권, 558~559쪽

27) 히라가와 아키라 지음, 심법제 옮김, 1989 『초기대승불교의 종교생활』 민족사, 305쪽 ; 남동신, 1995, 앞의 논문, 26쪽

28) 한글장 149권, 559쪽

선덕의 왕위가 다음에는 자신[승만]에게 올 것으로 예견됐었고, 선덕도 승만에게 왕위가 이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덕여왕 말년에 승만으로 왕위가 이어가는 것에 대한 반란<sup>29)</sup>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왕위 계승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덕의 입장에서 승만에게 왕위를 넘겨줄 정당성을 부여해 주어야 했다. 물론 승만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덕이 승만에게 부여한 정당성은 진덕여왕의 이름인 ‘승만’에게 부여된 권위였다. 여성으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중흥무진 설법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부처가 된다는 승만부인의 이미지는 승만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덕과 승만은 승만부인의 그러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분황사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황사가 선덕이 창건한 사찰이라 승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선덕이 분황사에 행차할 때 가장 가까운 여성 왕족인 승만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분황사와 승만과의 관련성도 유추할 수 있다. 진덕여왕 [승만]대 새로 창건된 사찰이 보이지 않으므로 선덕여왕대 창건한 분황사가 계속하여 진덕여왕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진덕여왕은 『승만경』을 설하며 승만부인이 꿈꾸는 보광여래의 불국토를 실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선덕이 왕위에 오르고 다음에 또 여성인 진덕이 왕위에 올랐다. 진덕은 이른 시기에 다음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당당히 성불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진덕은 『법화경』의 변성성불에 의한 여인성불이 아니라 여성 그 자체로 성불할 수 있는 『승만경』의 즉신성불에 힘입어 자신을 부처에 비꼰 것이다. 진덕여왕의 손이 부처처럼 무릎을 지날 정도로 길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29) 후보돈, 1997 앞의 논문과 정용숙, 1997 앞의 논문 참조.

### 3. 해공왕의 변성성불과 신라의 위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끝으로 신라 중고기가 끝나고 태종 무열왕부터 중대가 시작된다. 중대의 마지막 왕은 해공왕이다. 그런데 해공왕은 원래 여자로 태어날 몸이었는데 남자로 변하여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

H. 왕[경덕왕]이 하루는 표훈대덕에게 말하기를 “내가 복이 없어 자식을 얻지 못하니 원컨대 대덕은 상제께 청하여 아들을 점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표훈이 천제께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천제의 말씀이 딸은 얻을 수 있지만 아들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길 “원컨대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소서[轉女成男]”하였다. 표훈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 청하였다. 천제가 말하길,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아들이 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하였다.(『삼국유사』 권 2 기이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여자의 몸을 바꾸어 남자의 몸을 이룬다는 변성성불은 여인이 성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 변성성불은 여인이 깨달음의 원을 세우고 수행과 관법으로 정진한 후 얻게 되는 결과이다. 불경에는 변성성불을 위에서 언급한 ‘전녀성남(轉女成男)’이라 표기하기도 한다.<sup>30)</sup> 그런데 경덕왕은 깨달음

30) 『대보적경』 한글장 100권, 45쪽; 대정장 11, 549-a “만일 저의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대중들의 몸이 금빛이 되고 저의 이 여인의 몸도 남자로 변하여 서른 살 쯤의 법을 아는 비구가 될 것입니다”(若我此言非虛妄者 令此大眾身皆金色 我之女身變成男子 如三十歲知法比丘 說此語時 此諸大眾皆作金色 妙慧菩薩轉女成男 如三十歲知法比丘.) 『야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한글장 157권, 569~579쪽; 대정장 14, 405-b. “여덟째의 대원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 여인이 있어, 여자의 온갖 나쁜 것 때문에 쫓기고 괴로워하여 극히 싫어하는 마음이 나서 여자의 몸을 버리고자 원하면 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일체의 여자를 변하여 남자가 되게 하고 장부의 상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무상의 보리를 증득할 것을 원한다” “第八大願 願我來世得菩提時 若有女人 為女百惡之所逼惱 極生厭離 願捨女身 聞

은 이랑곳 하지 않고 '전녀성남'이란 그 결과만을 중시하여 딸을 아들로 바꾸었다. 이는 불교의 성불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변성성불한 후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천지가 진동하여 이를 축복하는 것이 상례인데,<sup>31)</sup> 해공왕이 전녀성남하여 태어날 때는 우레와 번개가 심하고 16개의 절에 벼락이 쳤다<sup>32)</sup>고 하여 하늘의 징계를 암시하고 있다. 경덕왕의 바람을 들어준 표훈은 의상의 제자로 화엄종 승려였다.<sup>33)</sup> 신라 중대 아미타신앙과 더불어 신라의 사상계를 지배한 화엄신앙이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인 해공왕의 순리를 어긴 전녀성남을 거드는 방식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34)</sup>

경덕왕과 표훈의 대화는 문무왕과 표훈의 스승인 의상과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문무왕은 의상을 불러 통일 이후 국방을 더 튼튼히 하기위해 성을 더 높이 쌓을 것을 권하자 의상은 정도(正道)로 나라를 다스리면 띠 풀로 경계를 삼더라도 감히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다. 문무왕은 의상의 말을 받아 들였다.<sup>35)</sup> 따라서 의상의 제자인 표훈도 경덕왕의 비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중고기에 선덕과 진덕이 여성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전례를 들어 해공왕도 여성으로서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건의했어야 했다.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하면서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

我名已一切皆得轉女成男具丈夫相 乃至證得無上菩提)

31) 『법화경』 권4 제바달다품, 한글장 41권 ; 157쪽 ; 대정장 9, 35-c. “그 청정한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無垢世界 六反震動“

32)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경덕왕 17년. “秋七月二十三日 王子生 大雷電 震佛寺十六所”

33) 김상현, 1991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201쪽.

34) 이기백은 위 이야기를 아들을 꼭 낳고자 하는 경덕왕의 뜻을 받은 표훈이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았고(이기백, 198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217쪽) 김상현은 표훈이 아들을 억지로 낳고자 하는 경덕왕에게 나라가 위태로워짐을 충고하는 이야기로 파악하였다.(김상현, 1991, 앞의 책, 287쪽).

3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27년 ; 『삼국유사』 권2 기이 문호왕법민

다는 표훈의 이야기는 당연히 경덕왕으로 하여금 후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유혹이 되었을 것이다.

경덕왕이 아들을 얻기 위해 나라를 버린 것은 또한 문무왕이 죽을 때 지의법사와 나눈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sup>36)</sup> 문무왕이 용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원하자 지의법사는 용은 옥도 윤희의 축생에 해당하므로 온당치 않다고 하자 왕은 실사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비유지만 신라 중대가 문무왕과 의상, 문무왕과 지의법사와의 대화를 통해 꾀꾀한 기반을 다졌다면, 경덕왕과 표훈의 대화에서 신라 중대가 급격히 막을 내리게 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다.

경덕왕도 선덕과 진덕의 전거를 알았기 때문에 딸로서 왕위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혜공왕이 그대로 딸로 태어났다면 여왕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덕왕은 자신이 한화정책을 밀고 나갔고<sup>37)</sup> 신라 사회도 유교적 정치이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남성이 왕위를 이었으면 바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훈이 몸담고 있는 불교계도 중고기의 변성성불론의 입장에서 후퇴하여 여인의 5장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sup>38)</sup>

36) 『삼국유사』 권2 기이 문호왕법민

37) 경덕왕은 혜공왕이 태어난 758년(경덕왕 17)을 전후하여 9주를 비롯한 지방군현의 명칭과 중앙 관부의 명칭을 모두 漢式으로 바꾸었다(『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경덕왕 16년·18년).

38) 김영미는 “원효는 여인의 5장애를 언급하며 여성성불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중대의 대부분의 승려가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김영미, 1995, 앞의 논문, 143~145쪽)고 했고 “여성성불론이 다시 대두하는 것은 기록상 고려후기 해심에서다”(김영미, 2003, 앞의 논문)라고 했다. 생각컨대 여성성불론은 중고기의 긍정적인 입장에서 중대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경덕왕은 왕은 남성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여성으로 태어날 혜공왕을 남성으로 바꾸었다. 기록에도 혜공왕은 이미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으므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언제나 여자들이 하는 장난을 하고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sup>39)</sup> 혜공왕이 본래 여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겐 후사가 없었고 표훈의 말대로 나라가 위태로워져 신라 중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라 중고도 여성인 진덕여왕 대 막을 내렸고 신라 중대도 역시로 남자 왕이 된 혜공왕 대 끝나고 있다.

#### 4. 진성여왕과 신라 여성성불의 종언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중고가 끝나고, 혜공왕을 마지막으로 중대가 끝났다. 그리고 신라 하대의 마지막 여왕은 진성여왕이고 역사상 마지막 여왕이었다. 선덕과 진덕이 성골로서 왕위에 올랐지만 진덕은 진골이었다. 선덕이 성골남진(聖骨男盡)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진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주위에 진골 남자가 많았다. 진골남자를 제치고 왕이 되었으므로 골품이 여성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절대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성은 오빠인 진왕 정강왕의 말처럼 앞서 선덕과 진덕의 선례에 따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진성의 아버지인 경문왕이 왕위에 오를 때의 상황은 진성과는 달랐다. 현안왕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I. 과인은 불행히도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 우리나라의 옛일에 비록 선덕과 진

39) 『삼국유사』 권2 기이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小帝既女爲男故 自期卒至於登位 常爲婦女之戲 好佩錦囊 與道流爲戲 故國有大亂 終爲宣德與金良相所弑”

덕 두 여자 임금이 있었으나,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받을 일이 못된다. 사위 응림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노련하고 성숙한 덕을 가지고 있다. 경들은 그를 왕으로 세워 섬기면 반드시 선조로부터 이어 온 훌륭한 왕업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인은 죽어도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현안왕 5년)<sup>40)</sup>

현안왕은 딸 영화가 있었다. 그는 선덕과 진덕의 고사를 알고 있음에도 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사위인 응림[경문왕]에게 물려주었다. 여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암탉이 울어 정사를 망친다는 『서경(書經)』 목서(牧誓)편의 ‘암탉이 새벽을 알린다’는 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sup>41)</sup> 이 말은 부인이 바깥 일에 간섭하는 것을 비유하여 경계한 말이다. 경덕왕이 왕위를 남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유교주의적 생각은 현안왕대 까지도 강하게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문왕의 아들인 정강왕은 다음 왕위에 대해서 시중 준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 나의 병이 위중하니 틀림없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다. 그러나 누이 만(曼)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빼대는 남자와 비슷하니 경들은 마땅히 선덕과 진덕의 옛 일을 본받아 그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정강왕 2년)<sup>42)</sup>

40)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현강왕 5년. “春正月 王寢疾彌留 謂左右曰 寡人不幸 無男子有女 吾邦故事 雖有善德眞德二女主 然近於牝雞之晨 不可法也 生膺廉 年雖幼少 有老成之德 卿等立而事之 必不墜祖宗之令緒 則寡人死且不朽矣”

41) 김부식이 선덕여왕의 통치를 비판하는 史論에 똑 같은 말이 등장하는데, 유교의 여성에 대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볼 수 있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사론).

42)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정강왕 2년. “夏五月 王疾病 謂侍中俊興曰 孤之病革矣 必不復起 不幸無嗣子 然妹曼天資明銳 骨法似丈夫 卿等宜倣善德眞德古事 立之可也”

정강왕이 선덕과 진덕의 예를 들면서 왕위를 누이 만에게 물려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현안왕과 정강왕의 사이는 불과 25년 차이밖에 안되지만 여왕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경덕왕과 현안왕의 여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정강왕의 말은 그러한 추세에 어긋나는 말이다. 정강왕의 경우는 사위도 없어서 누이인 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거나, 아니면 아버지 경문왕의 왕권강화책에 힘입어 경문왕의 큰 아들이 현강왕이 되었고 둘째 아들이 정강왕이 되었기 때문에 셋째인 만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sup>43)</sup>

그러나 선덕·진덕 이래 경덕왕이나 현안왕의 예에서 본다면 또다시 진성이 여왕에 오른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진성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아버지 경문왕과 오빠인 현강·정강의 후광과 선덕·진덕의 선례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선덕·진덕 때 기반을 잡았던 여성성불론이란 불교적 배경도 한 몫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신라 중대 이래 유교적 이념과 불교계의 여성성불론에 대한 반대 입장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법화경』과 『승만경』의 여성성불에 대한 전통이 남아있었다고 생각된다. 애장왕[혹은 경덕왕] 때의 이야기지만 여인이 여인(女人)의 몸을 가지고 성불했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K. 그녀[옥면]는 뜰 좌우에 길다란 말뚝을 세워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합장하면서 좌우로 흔들며 자기를 격려하였다. ... (법당 안으로 들어가 정진하자) ... 얼마 안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옥면은 몸을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으로 교외에 가더니 해골을 버리고 진신(眞身)을 나타내어 연화대에 앉아서 큰 광명을 발사하면서 서서히 가버리니, 음악소리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법당에는 지금도 구멍이 뚫어 진 곳이 있다고 한다.(『삼국유사』 권5 감통 옥면비염불서승)

43) 조범환, 2000 『우리 역사의 여왕들』, 책세상

육면은 노비이면서 여인이었는데, 노비라는 신분적 한계와 여인이라는 성의 한계를 치열한 수행을 통해 극복하여 진신(眞身)을 드러내었다. 신라 불교의 한 쪽에서는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는 깨달음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왕위에 오른 진성여왕은 국내외적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치력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였다. 진성여왕의 치세기간에 조세와 공물이 걷히지 않고 각지에 도적들이 들고 일어나서 궁예와 견훤이 세력발판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신라의 상황은 이미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인 정강왕 1년 8월의 기사에 '나라의 서쪽 지방에 가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진성여왕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욱더 어렵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성여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다스렸다 해도 그 상황은 어찌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성은 진골귀족의 대표자 격인 각간 위홍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왕위계승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진골세력을 무마하려고 하였고, 육두품 계열을 흡수하고자 당나라에서 귀국한 최치원을 적극 등용하여 그의 시무 10여조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기도 하였다.<sup>44)</sup> 진성은 위홍과 최치원을 통해 진골과 육두품을 아우른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려 하는 한편, 불교계를 통한 입지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정신적 동반자였던 각간 위홍의 갑작스런 죽음은 진성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고, 최치원의 개혁안도 진골귀족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은 왕위에 오른 그해 황룡사에서 『인왕경』에 근거한 대표적인 호국 법회인 백고좌를 설하고 친히 가서 법을 들었다. 백고좌의 설법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진성이 왕위에 오른 정당성을 불

44) 『삼국사기』 권11 진성왕 8년 “春二月 崔致遠曲時務一十餘條 王嘉納之 拜致遠爲阿湊

교적 측면에서 뒷받침할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백고좌는 『인왕경』에 근거한 호국법회이지만 진성이 선덕과 진덕의 선례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선덕과 진덕 때 여왕 즉위의 명분을 준 경전의 교설을 덧붙여 강설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법화경』의 용녀설화에 나타난 변성성불이나 『승만경』의 승만부인의 즉신성불에 대해서 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으로 하여금 향가집인 『삼대목』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덕의 정치적·불교적 노력은 이미 어렵게 된 신라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통일신라는 더 이상의 통일신라가 아니고 견훤과 궁예가 등장하여 새로운 후삼국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더구나 선덕과 진덕이 배경으로 삼았던 불교의 여성성불론을 관철시켜 여왕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시대적 환경이 많이 변했다.

중대 이후 꾸준히 자리를 넓혀 온 유교정치이념은 신라 하대에 이르러 더욱 공고해져 나갔다. 여성으로서 왕위에 오른 진성은 유교의 가장 이상적인 왕위계승형식인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진성은 큰 오빠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에게 선위하였다. 그러나 효공왕은 후사가 없어 죽고 박씨계인 선덕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김씨 무열왕계의 신라 왕실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여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여성이 왕이 되지 못하였다.

## 맺음말

지금까지 선덕과 진덕, 그리고 진성이 최고의 통치자인 여왕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골품제를 든다. 성골만이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성골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성골 여성이 여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평왕이 석가족을 자처했고, 선덕과 진덕의 이름과 왕호도 불교와 관련 있고, 성골이란 골품도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한다.

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경덕왕의 이들을 얻는 이야기와 현안왕의 딸, 그리고 김부식의 사론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적 입장에서 강력한 반대도 있었다. 본질적으로 유교사회에서 여왕이 나오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유교에서는 여성을 성인(聖人)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는 제한적으로 여성성불(女性成佛)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성불에는 남자의 몸으로 변해서 깨닫는 『법화경』의 변성성불이 있고, 아니면 여인의 몸 그 자체로 깨닫는 『승만경』의 즉신성불이 있다. 여성성불론은 여왕이 왕위에 오르거나 통치를 할 때 여왕 통치의 긍정적인 면을 뒷받침 해 주었던 이론이었다. 그리고 선덕·진덕 2대에 걸친 여왕시기를 통해 널리 퍼진 것으로 생각된다. 중고기의 여성성불론은 중대를 거치면서 불교 내부의 부정적인 입장과 유교이념의 보급으로 그 영향력을 잃어갔다. 경덕왕은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녀성남 한 것이 아니라 속세의 남자 왕을 만들려고 ‘전녀성남’하였다. 경덕왕이 시도한 전녀성남은 ‘여성성불[변성성불]’에서 모티브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성불론은 하대 현안왕에 이르러 여자를 암탉에 비유하는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쳤지만, 그 명맥은 유지되어 진성여왕이 마지막으로 여왕에 오를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의 하나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여왕의 양위 이후 여성성불론은 수그러들었고 고려후기 혜심에 이르러 재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혜심대의 여성성불론은 여왕즉위 보다는 여성의 깨달음이란 종교적·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승유역불의 성리학이 지배하게 되자 불교가 배척되는 상황에서 불교안의 여성성불론은 조선사회에서 그 의미 자체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성불론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유교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평등사회이고, 다종교사회이다. 따라서 불교의 여성성불론은 여성 담론에 대한 인식전환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좋은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고일자 : 2009. 1. 30      심사일자 : 2009. 2. 4      게재확정일자 : 2009. 2. 19  
주제어 :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여성성불론, 법회경, 승만경

<Abstract>

## Queens of Silla and the theory for a woman to achieve the buddhahood(女性成佛論)

Jo, Gyung-cheoul

There are three Queens in Korean History. All are queens of Silla(新羅, BC 57~AD 918). The first is Queen Sundeuk(善德女王), the second is Queen Jindeuk(眞德女王), and the third is Queen Jinseong(眞聖女王).

One way of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three queens coming to the throne is by understanding the Golpum(骨品, bone-rank) system. Due to the fact that Queen Sundeuk and Queen Jindeuk are from Seonggol(聖骨, hallowed-bone) lineage, this qualifies them to come to the throne.

But another explanation of Queens' enthronement is the theory of Yeoseongseongbul(女性成佛論, a theory for woman to achieve the buddhahood). This theory supported them to become queens.

Sundeuk's Yeoseongseongbul was based on the Byunseongseongbul(變性成佛), transforming herself into a man to achieve the buddhahood shown in the Beupwha Sutra(法華經). But in the case of Jindeuk, her position was developed. Jindeuk was based on the Geugsinseongbul(卽身成佛), achieving the buddhahood with a woman's body shown in the Seungman Sutra(勝蔓經).

King Haegong(惠恭王) of Unified Silla(統一新羅) might have become a queen. However, Haegong was transformed as a man before he was born. According to confucianism, only a man can become a king.

The last Queen is Jinseong. In spite of Confucianism, due to the tradition of two previous queens and Yeoseongseongbul, she came to the throne. But she later retired due to the confucianism based ideology in politics during her period.

Key Words : Queen Sundeuk(善德女王), Queen Jindeuk(眞德女王), Queen Jinseong(眞聖女王), Beupwha Sutra(法華經), Seungman Sutra(勝蔓經)Yeoseongseongbul(女性成佛)